

2025년 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 일시: 2025년 7월 24일(목) 오후 15시 00분

□ 장소: 한국모금가협회 사무실(중구 명동)

□ 참석인원 및 명단: 재적 이사 6명 전원 참석, 감사 2인 참관

1. 이사 명단: 허탁, 김성규, 임성택, 조세현, 황애경, 황신애

2. 참관 명단: 김상수 감사, 정낙섭 감사

□ 주요 안건

1. 보고 사항

- 2025년 상반기 운영 및 사업보고

2. 심의 안건

- 정관 개정

- 회원 규정 개정

□ 회의 내용

1.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허탁 이사장이 정관 제5장 제26조(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본인 출석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

2. 전차 회의록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함.

3. 2025년 상반기 운영 및 사업보고

- 황신애 상임이사가 회의 자료와 동일하게 설명함.

- 사업계획 수립 시 정한 전략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회원 모집이 여전이 어렵고 단기적으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음을 공유함. 허탁 이사장이, 차후 회원 모집 목표치를 정할 때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세울 것을 주문함.
- 상반기 추진한 사업 내용 전반을 보고, 미진행된 사업 3~4가지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유보하여 진행하는 것에 전원 동의함.

4. 심의 안건

1) 정관 개정

- 황신애 상임이사가 정관 개정의 필요성과 상세 내용을 자료와 같이 설명함
- 허탁 이사장이 전문회원 중심의 대의원 제도로 전환하는 것의 문제를 언급, 임성택 이사가 이는 정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또 대의원 제도가 총회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지적, 개선을 요구, 김성규 이사는 이사장, 회장, 의장에 대한 용어 정리가 혼선을 빚음을 지적함.
- 다양한 토론과 의견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전원 합의함.

1) 회원을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함.

2)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정회원에 한정함. 회원의 종류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잘 정리하여 기존 및 신입회원들에게 잘 안내하도록 함. 특히,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해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총회 운영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충성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함.

3) 대의원 제도를 폐지함.

- 이번 정관 개정 작업이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의된 내용을 반영한 문안작업을 한

후 여러 차례 공유-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인 후, 온라인 회의로 결의하기로 함. 원안 작업은 임성택 이사가 지원하기로 함.

2) 회원 규정 개정

- 회원 규정은 정관 개정 작업 이후 내용을 정렬하여 작업하기로 함.

5. 폐회

- 허탁 이사장이 2025년 7월 24일 오후 16시 30분, 2025년 2차 정기 이사회 폐회를 선언함.

2025년 7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모금가협회

의 장 이사장 허 탁 (인)

이 사 김 성 규 (인)

임 성 택 (인)

조 세 현 (인)

황 애 경 (인)

황 신 애 (인)